

TWN&PuRE-NET Oslo 2016 Annual Conference

2016.9.24 - 10.1
노르웨이(오슬로)

염철호 연구위원, 임유경 부연구위원

(a u r 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 출장개요

1) 출장목적

o TWN & PuRE-Net Oslo 2016 Annual Conference 참석

- 전세계 19개 국가 공공건축 관련 기관의 정책네트워크인 TWN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각국의 공공자산 관리정책 현황 파악 및 한국의 공공건축 정책 소개
- AURI는 2015년도 TWN컨퍼런스에 참여하여 각국 기관의 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정식멤버로 참여하게 됨
- TWN의 공식 초청으로 초청자 세션에서 「AURI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과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주제로 연구 성과 발표

2) 주요 업무수행

(1) TWN & PuRE-NET Oslo 컨퍼런스 참석

o 국제 컨퍼런스 행사 개요

- 행사명 : TWN & PuRE-Net Oslo 2016
- 일시 : 2016년 9월 25일(일) ~ 29일(목)
- 장소 : 노르웨이 오슬로 Grand Hotel, Oslo Militære Samfund
- 주최 : Statsbygg, Forsvarsbygg
- 주제(3 Main Topic)
 - Efficient use of space and new ways of working
 - BIM and signing of statement
 - Security

o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표

- 일시·장소 : 2016. 09. 27.(화) 09:30, 오슬로 그랜드호텔
- 발제자 : 임유경 공공건축지원센터 센터장, 고영호 부연구위원
- 주제 : Better public buildings: Role of NPBC(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and 'Preliminary Review'

- 주요내용
 - 공공건축지원센터 등 연구소의 공공건축 관련 연구 및 사업 소개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관련 등 공공건축 관련 정책 현황 소개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등 국내 공공건축 관련기관의 역할

(2) TWN 컨퍼런스 프로그램 연계 오슬로 답사 및 공공건축물 조사

※ 2016. 9. 27일(수)~28(목) TWN 답사 프로그램 참가 및 주요 공공건축물 조사

- o 오슬로 오페라하우스 : Snøhetta 설계
 - 노르웨이 정부는 오페라하우스를 문화강국 노르웨이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 오슬로의 재개발 지역에 대규모 문화시설을 입지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의 촉매가 되도록 계획
 - 오슬로 오페라하우스는 2000년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 부산오페라하우스 설계자이기도 한 Snøhetta가 선정되어 설계를 진행
 - 전체 면적은 38,500m²
- o 신(New) 국립박물관 사업(시공 중) : Kleihues + Schuwerk Gesellschaft von Architekten mbH 설계
 - 노르웨이 정부는 “모든 예술”을 위한 새로운 국립박물관을 오슬로에 건설하기로 결정
 - 환경,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고려
 - 전체 면적은 54,600m², 전시공간 면적은 13,000m²
 - 2020년 완공 예정
- o 국립건축박물관 : Christian Heinrich Grosch(1801-1865)가 설계한 건물을 Sverre Fehn(1924-2009, 1997년 프리츠커상 수상)가 리모델링 및 증축
 - 2008년 현재의 건물에 재개관
 - 19세기와 20세기 노르웨이의 가장 중요한 건축가 2인이 관여
 - 상설 전시 : 다양한 건축 작업의 도면, 모델, 사진 전시
 - 기획 전시 : 현대 또는 역사적 주제로 함

4) 주요 일정

일 자	현지시간	출발지	도착지	일 정	기 타
9월24일 (토)	14:15 - 18:55	인천	암스테르담	◦ 인천공항 출발	
	20:55 - 22:40	암스테르담	오슬로	◦ 암스테르담 경유, 오슬로공항 도착	
9월25일 (일)	15:00 - 21:00	Grand Hotel		◦ 참가등록 ◦ 위원회 회의 및 리셉션	
9월26일 (월)	9:00 - 18:00	Oslo Militære Samfund		◦ 개회식 ◦ 패널발표-1 〈스마트·효율적·효과적 업무공간 조성〉 ◦ 패널발표-2 〈BIM 활용〉	
9월27일 (화)	9:30 - 12:30	Grand Hotel/ 오슬로 정부청사		◦ 행사 참석 및 초청기관 발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과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	
	14:00 - 18:00			◦ 패널발표-3 〈공공청사의 보안강화〉	
9월28일 (수)	9:00 - 11:30	Grand Hotel		◦ 토론 : 기관별 전략·성과·업무공간 개선 방안 ◦ PuRE-Net 전략 및 업무성과 ◦ 패널발표-3 〈공공청사의 보안강화〉 (이어서 진행)	
	12:45 - 14:00			◦ 폐회식	
	14:00 - 18:00	오슬로 시내		◦ 공공건축물 조사-1 오슬로 오페라하우스(Snøhetta 설계)	
9월29일 (목)	9:30 - 12:00			◦ 공공건축물 조사-2 신(New)국립박물관 신축사업 (Kleihues + Schuwerk Gesellschaft von Architekten mbH 설계)	
	14:00 - 18:00			◦ 공공건축물 조사-3 국립건축박물관 (Sverre Fehn 리모델링·증축)	
9월30일 (금)	15:05 - 16:25	오슬로	런던	◦ 오슬로 출발	
	19:35 -	런던	-	◦ 런던 경유	
10월1일 (토)	-14:25	-	인천	◦ 인천공항 도착	

2.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업무공간

■ Topic 1 : Smart Effective and Efficient Workplace

- (Perspectives on new work, Exploring emerging conceptualization_Esko Kilpi)
사회가 변화하면서 ‘업무’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으며, 소통, 네트워크, 관계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개인 업무공간이 아닌 사람들 간의 소통방식에 근거하여 업무 단위(unit of work)를 계획해야 함
 - The transformation : the road from the past to the future
 - Platforms. A new face for corporations
 - From the industrial to an entrepreneurial era
 - Drafting the new world of work
- (Planning for People and Productivity_Nigel Oseland) 업무시설의 공간구성, 위생 등은 사람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개인, 더 나아가 조직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침. 업무공간 구성 시 조직 내에서의 역할, 개인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함. 과거에는 업무시설 디자인의 주안점이 물리적 공간, 신기술이었다면, 최근에는 ‘사람’이 중요해짐
- (Efficient and Attractive: New Workplaces for the modern state administration_Juriaan van Meel) 미래 업무공간은 ‘유연성(flexibility)’이 중요. 공유공간(shared space), 사색공간(space to think), 그 외 부수적 공간(extra space)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새로운 업무 방식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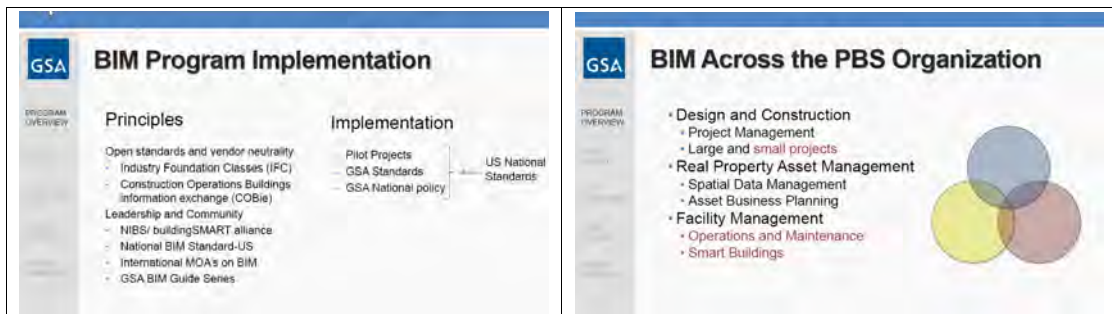


발표 및 토론 모습

(2) BIM

■ Topic 2 : BIM

- (BIM in the USA_Norman Dong) 미국의 공공자산 관리 관련 BIM 활용 현황, 시범 사업, 관련 기준과 국가 정책 현황을 설명하고 대표 사례를 소개. 설계와 시공, 사업 관리, 부동산 자산 관리(공간 데이터 관리, 자산 사업계획), 시설 관리(운영과 관리, 스마트 빌딩) 등 PBS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서 BIM을 활용
 - program overview
 - GSA policy
 - GSA standards
 - case studies
 - moving forward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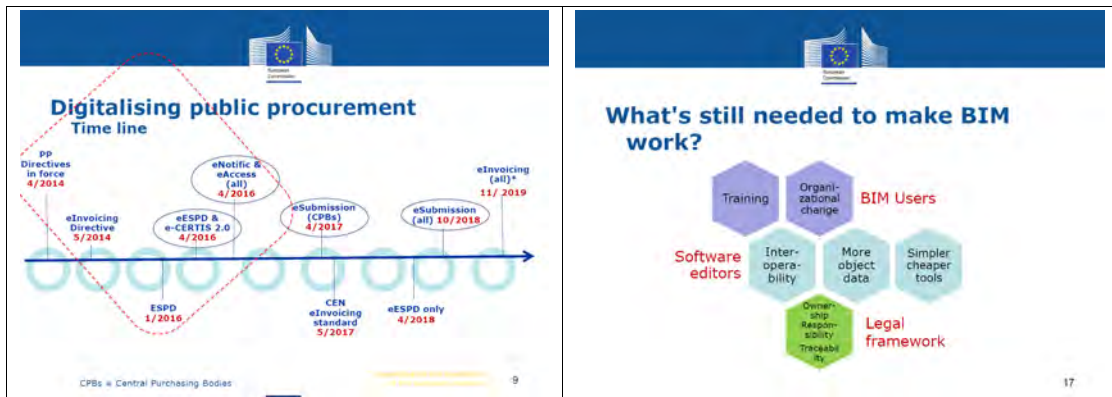


BIM 적용 원칙과 적용

BIM 적용 영역

(발제자료 PPT 중 발췌)

- (BIM in Europe_Lutz Koppen) BIM이 장점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주처의 수요에 대한 이해 부족, 의사소통 문제, 허술한 정보 관리 등의 문제로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BIM은 모든 단계에 걸쳐 통합적으로 적용될 때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으며, 공공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함. EU Task Group을 결성하여 업무와 기준 표준화,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음
 - BIM : what's at stake?
 - The public sector : driver for change
 - E-procurement
 - BIM in the PP Directive
 - European standardization work on BIM



공공발주 디지털화 계획

BIM 적용을 위한 과제

(발제자료 PPT 중 발췌)

- (Open BIM—Creating a Universal Approach_Richard Petrie) ‘표준(기준)’은 설계와 시공, 운영·관리에 있어 시간과 돈을 절약하게 하고, 보다 현명한 결정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점점 중요해짐. buildingSMART는 건설자산산업에 있어 디지털화의 모든 장점을 극대화하고자 함. 공공조직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돕는 디지털화를 선도할 필요
 - Why are Open, Universal Digital Standards important?
 - Why is buildingSMART important for Open Standards?
 - Why should you take a leading role?

(3) 공공건축물의 안전

■ Topic 3 : Security

- (Planning and Urban Design Challenges:Character, Accessibility & Security—issues from London_Graham King) 지난 삼십 년간 사람들이 도심과 여러 장소에 접근하고 이용하고 즐기는 방식이 변화되었으며, 안전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 공공공간을 포함한 도시공간 계획은 경계를 없애고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을 지향.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제어 수단을 적용할 수는 없음
 - Security threats & responses
 - Vehicle borne/Transport & Traffic
 - Crowded Places
 - Physical & hidden deterrence
 - Icons versus Souks

- (Terrorist attacks in Norway 22, July 2011 and 26 Plans for rebuilding the governmental quarter in Oslo_Svein Olav, Christensen Jo Ullveit-Moe)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 도심의 정부청사 폭탄 테러 이후, 테러를 대비한 조치 강화.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정부청사단지 사업(오슬로 중심부에 위치)에서는 이중으로 보안경계를 계획
 - The government's decision
 - idea phase & urban principles
 - spatial and function programme
 - activity based workstation



정부청사단지 보안 경계 및 접근 제어 계획(발제자료 PPT 중 발췌)

■ Security_panel discussion

- 다중이용공간에서의 테러 등 예기치 못한 위협을 자동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소개 (automatic detection of threats/behaviour_Mats Carlin of SINTEF)
 - Behaviour Modelling
 - Data acquisition (video cameras/microphones)
 - Behaviour Detection
 - Real-time platform integration
 - Privacy & legal iss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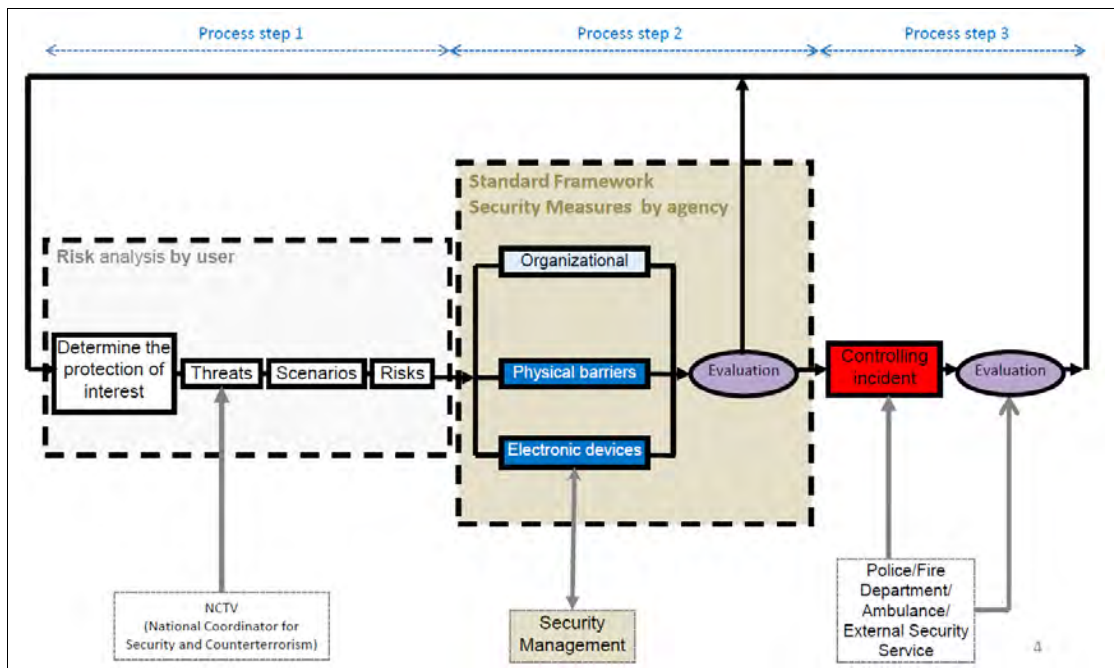


Intelligent surveillance

Passenger tracking (IR camera)

(발제자료 PPT 중 발췌)

- 정부청사 건물의 안전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 프레임 워크와 안전확보 프로세스 (Roger Mol_central government real estate agency)
 - To ensure app employees are safe and secure
 - To secure internal processes & materials and equipment
 - Prevention damage to buildings and resources
 - Secure Information



안전확보 프로세스 (발제자료 PPT 중 발췌)

■ PuRE-Net Working Table

- (Strategy_Geoffroy Magnan) 공공자산(건축물)의 활용에 있어 3가지 타입(비 임대, 실 비용 기반 임대, 시장 가격 기반 임대)에 따라 임대모델을 규정하는 주체(central gov., property unit, users/tenants)간의 관계성을 구조화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을 제시
 - Efficient Supplier : kpi for the pu, customer satisfaction, monitor the monitor
 - Demand Shaping : recommend policies, monitoring(application & effectiveness), advisory role
 - Mandate : benchmark/define policy (central gov.↔property unit), monitor/help apply (property unit↔users/tenants), reporting/enforce policy (central gov.↔users/tenants)

- (KPI_Morten Dybesland) PuRE-Net의 2015년도 컨퍼런스에서 설정한 목표(to compare and learn from best practice)에 따라 도출한 KPI를 제시
 - Square m/FTE
 - Maintenance cost/ Portfolio standard KPI
 - The maintenance rate
 - Profit or return to capital
 - Occupation rate

- (Efficient office space solution_Robert Erfen) 2016년 6월 14일~16일 개최된 Working Table (유럽 10개 기관 22명 참가)에서 ‘Space Management’를 테마로 도출한 효과적인 사무공간 개선방안을 제시
 - Intelligent space management
 - Developing clients cost awareness
 - Renegotiation of private lease contracts
 - Energy saving by sustainable buildings
 - Space management by forward-looking plan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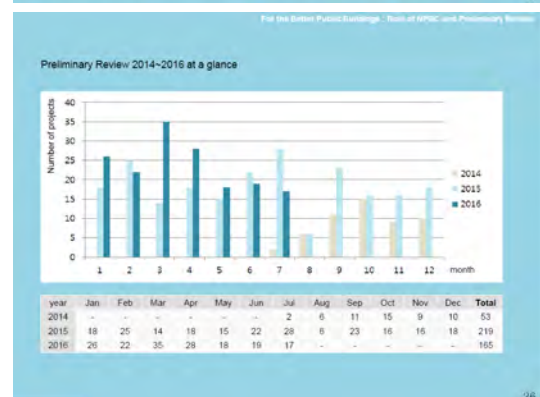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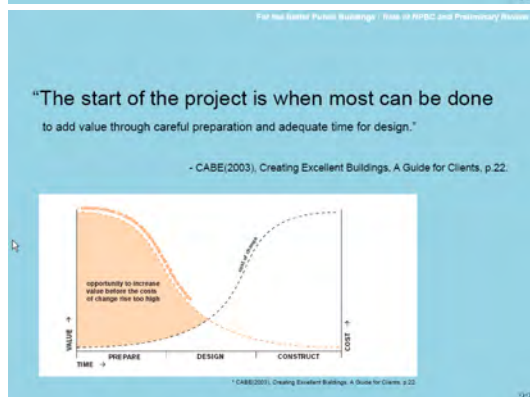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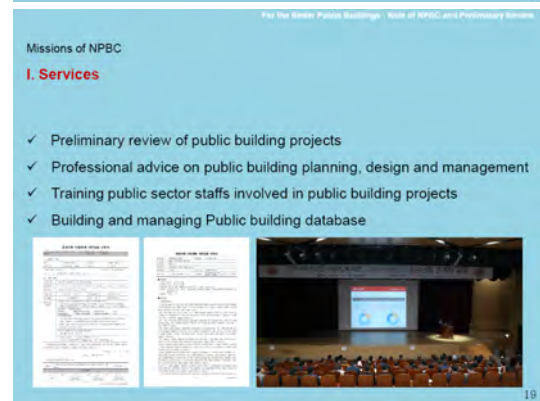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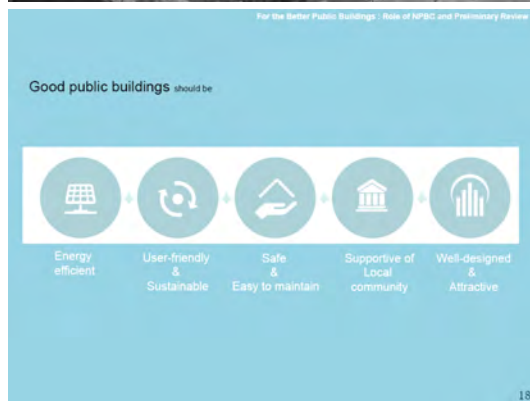
사무공간의 효율성 제고 및 비용절감을 위한 해결책

구분	세부내용
Intelligent space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eck / reduce space requirement • finding the perfect fitting accommodation • relocation to reach better efficiency • new working concepts • strengthen flexibility / mobile work • strengthen health and well-being • reducing vacancy
Developing clients cost aware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eating incentives for a cost efficient behaviour • every m² counts and costs • raise employees energy saving awareness
Renegotiation of private lease contra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prove rent conditions on the occasion of a contract extension
Energy saving by sustainable build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w constructions and new accommodations should comply with new energy standards • using regenerative energy sources
Space management by forward-looking plan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timal exploitation of inner city site potentials in the case of new constructions

3. 공공건축지원센터 발표 내용

■ Hot Topics part 2 섹션에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 사전검토 제도 개요와 기대효과를 발표

- 2016년부터 정식회원국으로 참여, Hot Topics section에 초대되어 주제 발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설립 취지, 주요 역할과 조직구성 소개
- 우리나라 공공건축 현황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배경, 주요 역할 소개
- 공공건축 기획 단계의 중요성, 사전검토 제도 개요와 성과 발표



발표자료 주요 내용 및 발표 모습

4. 공공건축물 현황 조사

※ TWN conferenc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Statsbygg가 참여한 공공건축물 답사 수행

■ 오페라 하우스 Opera house

· 시설 개요

- 연면적 : 38,700m² / 건축면적 : 15,590m²
- 공용면적 : 11,326m² / 무대 등 공연면적 : 8,405m²
- 설계 : Snøhet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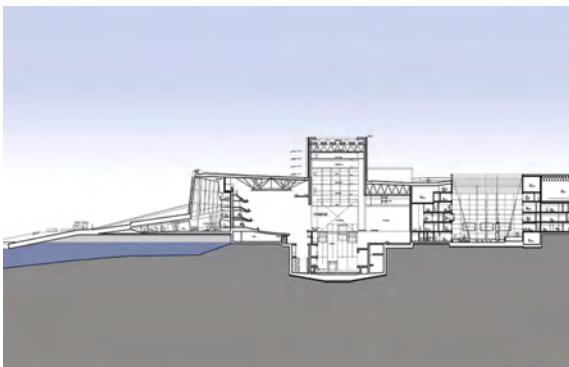
- 쇠퇴한 항만지역의 재개발을 통해 노르웨이 오슬로의 문화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립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 결정 (1999년)
- 공개 국제현상설계를 통해 전 세계에서 242개의 작품 응모
- 다양한 마감방식을 적용한 대리석을 주요 외장 재료로 하여 마치 바다에 떠있는 빙하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거대한 매스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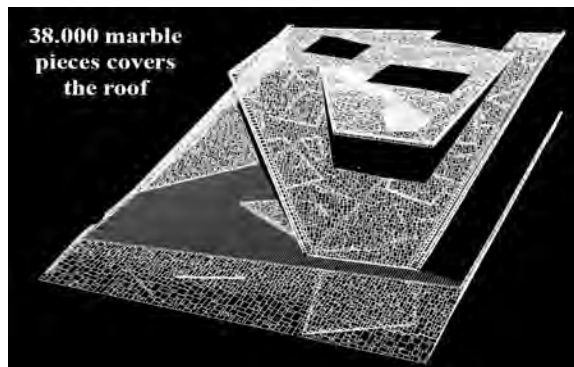
변경전 대지현황 (STATSBYGG 제공)



평면 (STATSBYGG 제공)



단면 (STATSBYGG 제공)



38,000개의 대리석 (STATSBYGG 제공)



진입로 (직접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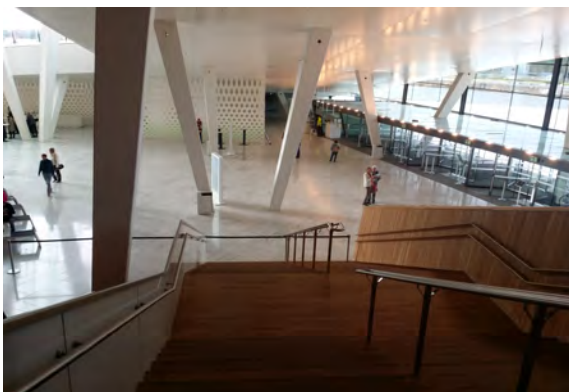
외관 (직접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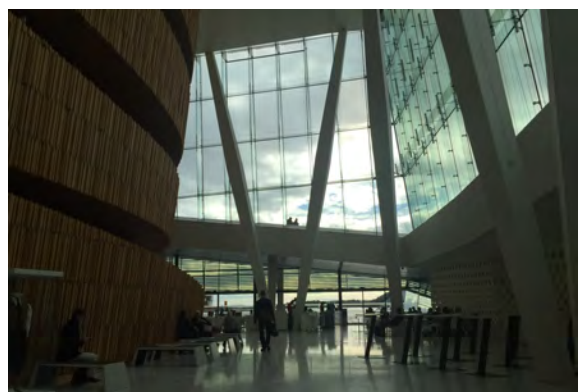
일반에게 개방된 옥상 (직접 촬영)



입구홀 (직접 촬영)



홀과 공연장 연결공간 (직접 촬영)



입구홀 (직접 촬영)

■ 신(New) 국립박물관 신축 현장

· 시설 개요

- 시설명 : The National Museum of Art, Architecture and Design
- 연면적 : 54,600m² / 전시공간 면적 13,000m²
- 설계 : Kleihues + Schuwerk Gesellschaft von Architekten mbH

– 2020년 완공 예정

- 노르웨이 정부는 “모든 예술”을 위한 새로운 국립박물관을 오슬로에 건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오슬로 시청사 부근 철도역과 철로로 쓰이던 부지를 활용하여 국립박물관을 신축
- 오슬로뿐 아니라, 국가적·세계적으로 중요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조성 과정을 Statsbygg에서 주관
-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독일 건축가 Kleihues + Schwerk Gesellschaft von Architekten mbH 선정
- 시청사 주변 지역 재생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박물관뿐 아니라 주변에 주거와 업무시설이 들어서고 있음.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고려
- 부지에 인접하여 위치한 옛 건물을 리노베이션하여 박물관 조성 과정을 알리는 홍보 및 전시관으로 활용



신 국립박물관 설명자료 (STATSBYGG 제공)



신축 예정 건물 (STATSBYGG 제공)



STATSBYGG 설명 모습 (직접 촬영)



사용 예정 재료 (직접 촬영)



공사현장 (직접 촬영)



전시관 모습 (직접 촬영)

■ 국립건축박물관

· 시설 개요

- 시설명 : The National Museum – Architecture
- 설계 : Christian Heinrich Grosch(1801-1865) 설계,
Sverre Fehn(1924-2009) 리모델링 및 증축
- 2008년 현재 건물에 재개관

- 노르웨이의 19세기 가장 중요한 건축가 중 한 명인 Christian Heinrich Grosch가 설계한 은행건물을 1997년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Sverre Fehn 이 국립건축박물관으로 리모델링·증축, 2008년에 개관
- 현재 건물은 고전주의와 근대주의 건축양식을 동시에 보여줌. 기획 전시 는 현대 또는 역사 건축을 주제로 열리며, 2014년부터 중요 건축가와 작업들을 다룬 상설전시 중
- 상설 및 기획 전시에는 도면뿐 아니라 건축 모델을 전시. 이동식 패널, 서랍식 도면 전시 등 좁은 전시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시 구성
- 국립건축박물관에는 전시공간뿐 아니라, 건축서적을 다루는 서점, 야외마당이 있는 카페가 있음
- 목요일에는 모든 국립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함



상설전시관 내부 (직접 촬영)



상설전시관 : 이동식 패널 (직접 촬영)



상설전시관 내부 (직접 촬영)



서랍을 활용한 도면 전시 (직접 촬영)



관람객 체험을 위한 스케치북 (직접 촬영)



카페 (직접 촬영)

5. 출장성과 및 시사점 요약

○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공간계획, BIM, 안전 등 공공건축 중요 이슈 공유

-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건축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공유하는 기관들의 네트워크인 TWN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중요 이슈를 공유
- 각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전문가들의 강연을 청취하여 세계적인 변화 경향과 연구 주제를 이해
- (업무공간 계획) 업무공간 계획은 점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고, 소통을 위한 공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보다 유연하고 열린 공간, 다양한 형태의 만남과 의견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지향함. 스마트워크, 상호 소통 확대, 업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청사면적기준 또한 변화할 필요가 있음
- (BIM) 세계 각국에서는 공공자산의 효율적 관리, 공공건축의 합리적인 설계·시공·유지·관리를 위해 BIM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추세임. BIM은 일부 과정에 국한하여 적용하기보다 공공건축 조성 절차 전반에 걸쳐 활용할 경우에 보다 도입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음. BIM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며,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필요
- (안전) 전 세계적으로 테러나 우발적인 범죄 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건축의 안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임. 건축물 내부뿐 아니라 공공건축물을 둘러싼 지역의 동선체계, 접근로 계획 시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함. 또한 신기술과 기기를 활용한 테러나 범죄 방지 기법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

○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건축물 계획의 주안점 확인 : 지역 재생, 열린 공간, 문화·역사 고려

- (지역 재생) 오페라하우스, 신 국립박물관은 폐 산업 또는 철도 부지를 활용, 주변 지역을 재생하는 촉매로 공공건축을 기획한 사례임. 공공건축물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시설로 의미도 있지만, 지역 전체를 바꾸는 촉매 역할을 함. 공공건축물 계획 시 지역 상황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프로그램과 입지를 결정하고 통합적인 계획의 일부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열린 공간) 오페라하우스는 ‘공연’이라는 본래 기능뿐 아니라, 방문객이 오페라하우스 주변과 옥상까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원’으로 기능하고 있음. 또한 저층부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시품 판매장과 카페를 배치하여

공연 시간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특정 목적만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 열린 ‘공공공간’으로서 역할하고 있음

- (문화·역사 고려) 신 국립박물관 사업에서는 철도 부속시설이었던 옛 건물을 보존하였으며, 국립건축박물관은 19세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용도의 공공건축물로 재탄생시킴. 시민들은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면서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년도 30년 이상 노후 공공건축물은 무조건 철거 후 재건축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담아내는 방식을 강구할 필요

○ 국가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자산관리와 품격향상을 위한 전담조직 마련 필요

- TWN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찍이 국가 공공건축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공공건축물의 기획부터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전담조직들은 특히 국가 공공건축물을 국가의 주요자산으로 인식하면서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차원에서의 전략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자산운용 계획을 바탕으로 공공건축물의 효율적인 운용과 가치증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업무공간(work place)의 개선, 국가 주요시설로서의 안전 확보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실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공공건축물의 구성과 관리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국토부, 그리고 각 부처로 역할이 분산되고 각 부처가 행정재산으로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국가 공공건축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 수립,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이루어지기 힘든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과거 80년대 전후 집중적으로 조성한 국가 공공건축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공공건축 사업에 소요되는 국가 재정의 부담 경감, 시대적 요구와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공간의 개선, 공공건축의 품격향상과 가치증진 등의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TWN 참여기관들에 대한 벤치마킹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 공공건축물의 총괄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제 교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연구소의 공공건축 연구·사업 홍보

- 해외 유관기관에 공공건축과 관련한 연구소의 역할 및 주요 연구성과 소개를 통해 연구소의 위상 제고 및 연구성과의 해외 확산(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공공건축지원센터 등 연구소의 그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도입된 공공건축

정책 현황 소개 및 홍보)

- 해외 각국의 공공자산 정책과 관련한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공통적인 문제점 등을 논의함으로써 연구소의 향후 공공건축 관련 연구·사업 방향 설정에 반영

○ 세계 주요 국가 공공건축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 기반 마련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6년부터 TWN의 정식 회원국으로 참가하여 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유럽 지역의 공공건축 관련 기관 네트워크인 PURE-NET 소속 기관과도 교류하여 네트워크 확대
- TWN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건축 연구와 관련 서비스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공공건축 관련 정부기관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
- 타 국가 기관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공공건축 관련 주요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 공공건축 관련 국제적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